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정은하 연구위원 93eunha@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8개의 실행 영역별로 해외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수행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 개요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7%인 경우는 고령화(aging) 사회, 14%인 경우는 고령(aged) 사회, 21%를 넘어서는 경우는 초고령(super-aged)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비율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19년에는 고령화사회(14%),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21%)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의료 및 복지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해당 도시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사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8개의 실행 영역별로 해외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¹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수행해나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²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로서, 2015년 현재 전 세계 33개 국가 287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인증과 다른 개념으로, 해당 도시가 당면한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노

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GNAFCC는 기본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형성과 노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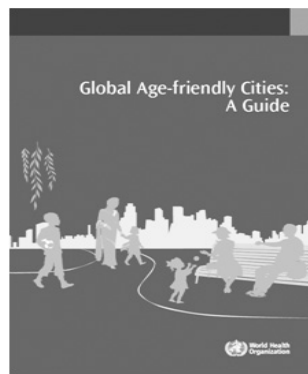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WHO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33개국 노인과 노인 부양자, 서비스 제공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WHO, 2007)를 마련했다. 이 가이드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마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과 점검항목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기 위해

그림1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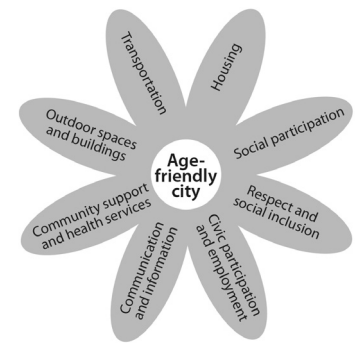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그림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자료 : WHO, 2007

그림3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구성



자료 : WHO, 2007

표1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기본방향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기본방향
①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제고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② 교통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이동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주거환경 안정성 (Housing)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비용 및 공공 설계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④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 활동 접근성 -행정·정보 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⑤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⑥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⑧ 의료 및 지역 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자료 : WHO, 2007

- 1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9.6%로 OECD 국가 평균의 4.4배로 1위이며, 노인 자살률은 81.9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이 또한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2015).
- 2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 거주 인구는 2030년경 전체 인구의 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WHO, 2007). 특히, OECD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 17.8%, 2050년에는 2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OECD, 2015).

개발된 것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에서 도시생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의 보편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서 제시한 8대 영역은 도시환경에서 나이 들어가며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각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역의 구성 자체를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회원 도시가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게 영역 구성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의 지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대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해외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

GNAFCC는 2014년 말, 온라인 플랫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사이트를 통해 각 회원 도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평가보고서는 물론, 우수한 정책 사례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WHO의 공식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GNAFCC에 관심 갖는 도시들이 속한 국가나 대륙별로 교류가 진행되어 온 경우도 있었다. WHO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협력 프로그램(Affiliated Program)으로

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가 및 대륙별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 교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비용적,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여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공유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최근 해외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들을 8대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특한 사례보다는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향과는 사뭇 다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표2 WHO GNAFCC 협력프로그램

번호	협력프로그램	지역
1	미국 은퇴자협회 고령친화커뮤니티 네트워크 (AARP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	미국
2	고령친화 아일랜드(Age-friendly Ireland)	아일랜드
3	에이지 플랫폼(AGE Platform)	국제협력 프로그램
4	국제노령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국제협력 프로그램
5	퀘벡 고령친화도시 (Municipalité Amie des Aînés, MADA)	퀘벡, 캐나다
6	팬-캐나다 고령친화커뮤니티 이니셔티브 (Pan-Canadian Age-friendly Communities Initiative)	캐나다
7	바쉬코르토스탄 지역프로그램 (Regional Programme Bashkortostan)	러시아
8	고령친화도시 프랑스어권 네트워크 (Réseau francophone des villes amies des aînés)	국제협력 프로그램
9	슬로베니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Slovene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슬로베니아
10	스페인 고령친화도시 국가프로그램 (Spa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friendly Cities)	스페인
11	영국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UK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영국
12	VIVA시티(VIVA CIDADES)	포르투갈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가. 외부환경 및 시설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장애나 편견없이 다 함께 어울려 살기 편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³ 적용을 통한 무장애(Barrier-free)⁴ 환경 조성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

그림4 미국 뉴욕 City Bench Program



자료 : <http://blog.naver.com/forestcds?Redirect=Log&logNo=220472894258>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나이로 인한 물리적, 사회적 장애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GNAFCC의 지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 자체가 실행계획의 주요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우도 많다.

한편, 세부과제로 더욱 쉽게 실행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의 보행도 어려워지는 노인들을 위해 거리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 사이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시민이 신청한 장소에 설치(미국 뉴욕)해주거나 고등학교 수업과 연계(영국 런던, 캐나다 오타와)하여 제작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개입되어, 단순한 사업임에도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의 서비스 제공의 의미와 다른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주요하게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나. 교통수단 편의성

편리한 교통 환경은 노인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사회활동 및 다양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고령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활기찬 노년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체계가 미비한 도시는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전용버스(미국 브루클린)’나 ‘택시 바우처(미국 뉴욕)’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노인전용버스는 낮에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인근의 상점이나 의료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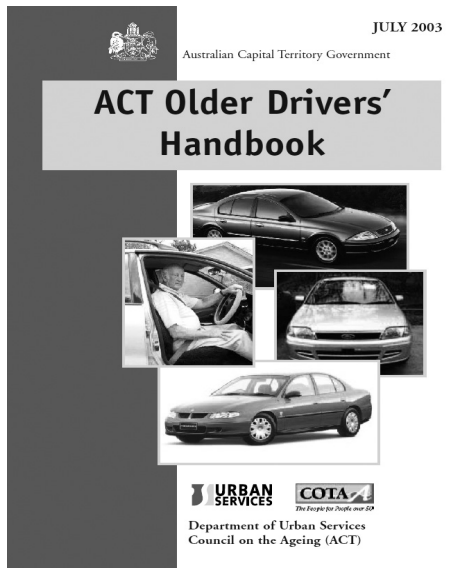
그림5 프랑스 리옹 인력거(Cyclopusse)



자료 : <http://www.arefo.com/les-raisons-du-projet/>

- 3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 불린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다(두산백과사전).
- 4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 이후 생긴 개념이다. 원래는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층을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건축학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그림6 호주 캔버라 고령운전자안내서



자료 :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Council on the Ageing (ACT), 2003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택시바우처는 지역사회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일정한 소득수준을 넘지 않는 노인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할인된 가격의 택시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 노인의 근거리 이동을 위해 '인력거(Cyclopusse)'와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프랑스 리옹)도 있다. 삼륜 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프로그램은 운전자 채용을 통한 인력고용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환경보호 효과, 운전자를 통한 노인 밀착 서비스, 광고물을 통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자가 운전자 많은 도시는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도로의 위험 요인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와 가이드북(미국, 호주 캔버라)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 주거환경 안정성

고령친화도시는 결국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노인이 정든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개인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주거지는 노후화되고, 신체 노화로 인해 주거 환경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거주자의 노령화에 따라 주거 내·외부를 개선하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해외 도시에서는 간단한 집수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신체 노화에 따라 특별히 신경 써서 수리해야 할 부분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제공하거나(미국 뉴욕), 필요한 도구를 대여해주는 사업(미국 보도인험(Bowdoinham)) 등이 있다. 더 적극적인 사례로는 도시의 노인 관련 부서에 건축 관련 전문가가 근무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집수리 공사를 지원해주는 경우(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도 있다.

그림7 미국 뉴욕 고령친화적 집수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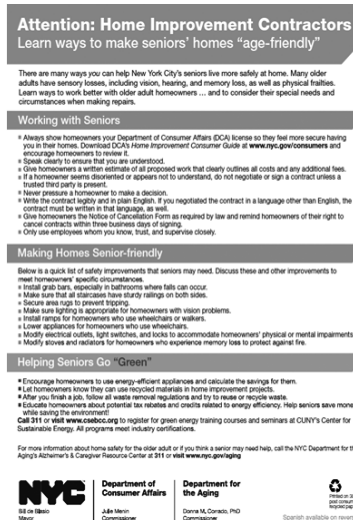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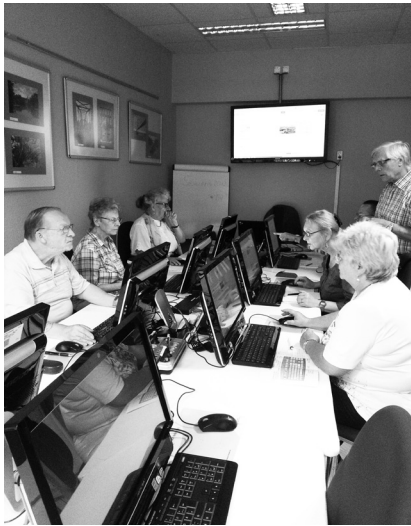


그림8 미국 보도인험 툴테이블 (Tool Table)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그림9 독일 시니어사무소
(Senioren Bü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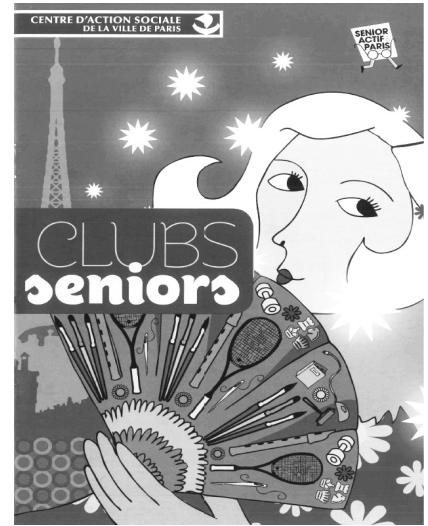
자료 : <http://www.seniorenbueros.org/>

그림10 캐나다 런던 노인위성
(Seniors' Satellites)



자료 : WHO GNAFCC 웹사이트

그림11 프랑스 파리 클럽시니어
(Clubs Seniors)



자료 : <http://www.lesmaisonsderetraite.fr>

라. 여가 및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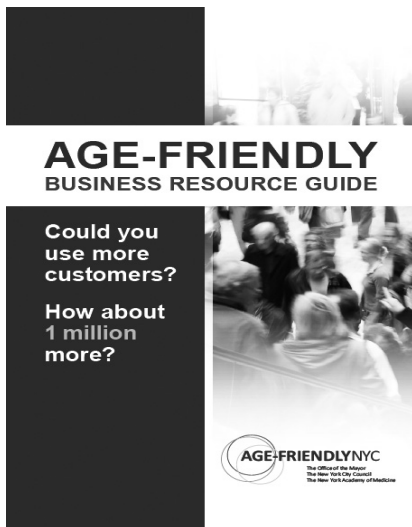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받는 방식을 지양한다. 즉, 노인이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제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Age: U3A)’이며, 노인들은 교육 참여자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자로도 활동하며, 품앗이와 같은 상호기여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 추세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소규모 시설(프랑스 파리, 독일)이나, 노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캐나다,

런던)는 노인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노인들의 선호를 분명히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 존중 및 사회통합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의 실천에 기본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영역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청년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며 이는 국내에도 이미 실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 도시 전반의 분위기를 고령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바로, 지역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고객을 대하는 태도, 매장환경을 노인에게 편리한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도시가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의 형태로 지침을 제시하고 협력 상점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미국 뉴욕, 아일랜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스페인 오르티시아). 일반 상점은 사실상 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상적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가 시민의 고령친화 체감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림12 뉴욕시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자료 : NYC, 2014

그림13 아일랜드 고령친화도 진단지



자료 : Ireland, 2012

그림14 스페인 고령친화 상점 스티커



자료 : <http://www.euskadilagunkoia.net/eu/>

바. 인적 자원의 활용

이 영역은 취업과 사회공헌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어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소득보장 정책은 물론 노인취업 정책 또한 적극적인 수준은 아니어서, 월 20만 원 내외 급여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나 취업정보 제공 등에 치우쳐져 있다. 반면, 최근 해외사례 중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인의 고용에 대해 소득활동으로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노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보다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존중받으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인력을 채용한 사업장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거나, 노인을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프랑스,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캔버라)를 제공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사. 의사소통 및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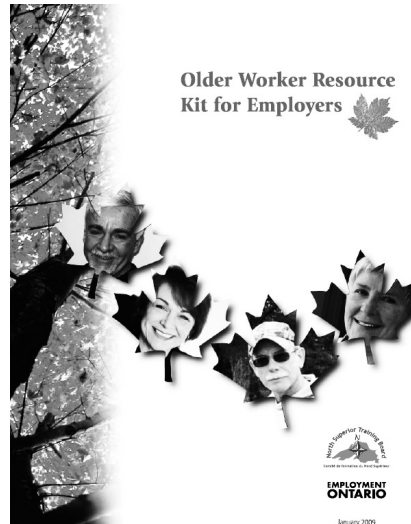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의 주요 과업은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 접근성 문제는 다른 정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각종 시설, 주거, 교통, 여가 활동, 일자리, 의료, 돌봄 영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많은 도시가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캐나다, 일본 도쿄, 영국 뉴캐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한 더 근본적인 접근으로, 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미국, 캐나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15 프랑스 기업의 노인보호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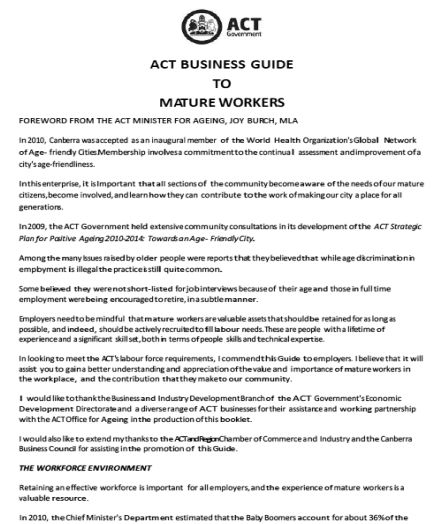
자료 : CESTP-ARACT, 2013

그림16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용주를 위한 노인인력 가이드



자료 : Employment Ontario, 2009

그림17 호주 캔버라시 노인인력 가이드



자료 : Canberra, 2011

아. 의료 및 지역돌봄

의료 및 지역돌봄 체계를 통해 관리해나가야 하는 노인 건강은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 내에서 노인 스스로 영양 공급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마켓라이드’, ‘그린카트’(미국 뉴욕) 등 노인에게 쇼핑 차량을 지원해주거나 채소노점상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소 간접적인 방식의 건강 관리 지원 정책이라면, 보다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낙상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접근이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상은 노인의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돌발 요소인 만큼 예방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도시에서 예방을 위한 안내서(미국 뉴욕, 아일랜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낙상 전문병원(스페인)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18 영국 뉴캐슬 노인정보웹사이트



자료 : <http://informationnow.org.uk/articles>

그림19 캐나다 고령친화적 의사소통 가이드



자료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그림20 미국 고령친화적 건강정보 문서 가이드



자료 : National Institutes of aging, 2007

4. 서울시에 대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

서울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 전반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이 내용에는 GNAFCC의 지향과 부합되는 면이 커서, 서울시는 2010년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활동과 실제 정책 수립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2013년 6월 전 세계 139번째 회원도시이자, 아시아 국가 중 3번째, 대한민국 첫 번째 GNAFCC 회원으로 가입⁵하였다.

서울시가 회원 가입을 위해 WHO에 제출한 제1기(2013~2015년)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2)은 WHO 가이드의 8개 영역과 달리 6개 영역⁶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WHO 가이드 8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의 주요 정책적 관심 대상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지원과 관련된 영역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에 관심을 두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배경이 있었기에, GNAFCC 회원 가입 이후에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순조롭게 수행해나가며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에 여전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첫째, 해외에서는 노인을 자립적인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가와 건강돌봄 영역의 정책 사례에서 그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여전히 노인을 수동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일자리, 존중 영역과 관련하여 사업장 안내서, 비즈니스 안내서 등을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노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향과 관련 정책 사례들은 향후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정책과제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정책은 일방적인 공급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정책에서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호소통을 통해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여가 영역에서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욕구중심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도시 단위의 계획 수립 시 모든 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비영리든 물론 영리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 주체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⁵ 서울시는 시장 서한, 3개년의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2),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명단, 서울시 고령친화도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여 GNAFCC 회원도시로 가입하였다. GNAFCC는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절차나 심사 과정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출 서류들에 대한 WHO의 면밀한 검토와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된 끝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

⁶ 1. 제2인생 설계지원, 2. 맞춤형 일자리, 3. 건강한 노후, 4. 살기 편한 환경, 5. 활기찬 여가문화, 6. 존중과 세대통합

내놓는 경우가 많다. 즉,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더욱 넓은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서울시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복지본부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로서, WHO도 부서 간의 협력을 매우 중요한 실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 계획을 마무리하며 제2기(2016~2020년)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중이며, 위에 제시된 다양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1기 실행계획의 기존 정책과 제들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을 실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더욱 향상된 정책과제들이 포함된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문헌

- 서울시, 2010, 2020고령사회마스터플랜
- 서울시, 2012, 서울어르신종합계획
- Canberra, 2011, ACT ACT Business guide to mature workers
- CESTP-ARACT, 2013, PRÉSERVER LES SENIORS
-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Council on the Ageing(ACT), 2003, ACT Older Drivers' Handbook
- Employment Ontario, 2009, Older Worker Resource Kit for Employers
- Ireland, 2012, Age Friendly Business Recognition Scheme
- National Institutes of aging, 2007, Making your printed health materials senior friendly
- NYC, 2010, How to Prevent Falls: A guide for older adults, <http://www.nyc.gov/html/dfta/html/health/falls-prevention.shtml>
- NYC, 2014, Age-friendly business resource guide
- OECD, 2015, Ageing in Cities: Policy Highlights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Age-Friendly Communication: facts, tips and idea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웹 사이트

- WHO GNAFCC 웹사이트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 영국 뉴캐슬 노인정보 웹사이트 (<http://informationnow.org.uk/>)
- 스페인 고령친화 비즈니스 웹사이트 (<http://www.euskadilagunkoia.net>)